

글말특강 소감문

20182244 정현태

저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리액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매번 느낀대로 바로 말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입장을 잘 전달 할 수있을지 생각하고 있었고, 공감을 하기보다는 고민에 대한 개선방안부터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친구들은 듣고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고민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대답이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대답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으며, 그런 힘든일을 겪을 때마다 남과 소통할 때 소극적이고 딱딱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이지, 그 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치는데, 친구와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똘히 생각하며, 더욱 침울해질 바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하면 그 때 고민을 상담해주는 방식이 정말 좋은 고민상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청하는 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남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 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가 중요한 얘기인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하는 것도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암기하고 기분을 들어주며, 감정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과 대화할 때 경청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하고 기억하며, 리액션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줄 때는 얘기했던 것을 다시 말하며 이런 점이 속상했겠네, 난감했겠네 라고 얘기하며, 너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신 점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누군가 문제를 발생하면 왜 저럴까? 라고 심리를 파악하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삼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의 불순한 생각들을 내치는 작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시대가 되며, 서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질타하며 비난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내가 살아남고 타인과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을 보면 정말 진정한 친구는 보고 아는 것이 아닌 알고 보자라는 말을 해주신 교수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사귀어온 친구 중 딱 한명 멀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행동을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텐데 이러한 강의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긍정적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